

칼바람 극복하고 새내기 547명 ‘빨간명찰’ 달았다

해병대교훈단 신병 1323기 수료식
병 323기 동기회, 후배 응원 발걸음

무적해병의 DNA로 무장한 547명의 해병이 새롭게 태어났다. 해병대교육훈련단(교훈단)은 4일 교훈단 행사연병장에서 신병 1323기 수료식을 거행했다.

수료식에는 미 해병대 무적캠프 부대장, 해병대전우회 전북연합회장, 포항시 해병대전우회, 부대 주요 지휘관·참모, 주임원사단, 신병 가족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신병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지난 10월 27일 입영한 1323기 신병들은 훈련 기간 계속된 초겨울 추위에서도 6주간의 강도 높은 기초군사훈련과 해병대 특성화훈련을 끈끈한 전우애와 해병대를 향한 열정으로 이겨냈다.

특히 정신력과 체력이 한계에 도달하는 5주 차 극기주에는 산악전훈련과 각개전투 훈련에 이어 전자봉 고지정복훈련까지 무사히 완수하며 선배 해병들이 흘린 피와 땀을 상징하는 빨간 명찰을 받고 해병대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

수료식은 애국가 제창, 수료선서, 해병 자격 선포, 해병의 금지 제창, 교육과정 우수자 상장 수여, 훈련기 반납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도열해 있는 신병들을 뜨겁게 포옹한 뒤 행복한 면회 시간을 보냈다.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해병이 된 안성재 이병은 “할아버지,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간다는 사실에 훈련하는 때 순간



4일 해병대교육훈련단에서 열린 해병 1323기 수료식에서 무적 해병으로 태어난 신병들이 해병자격 선포에 환호하고 있다. 사진 제공=유진열 상병

자부심을 느꼈다”며 “해병대 정신을 바탕으로 국토 수호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수료식에도 1000기수 후배 해병들의 수료를 축하하는 선배 해병들의 발걸음은 계속됐다. 병 323기 동기회는 이날 부대를 찾아 실무로 나아가는 까마득한 후배들을 응원하며 수료식을 빛냈다.

선배 해병들의 ‘1000기수 후배 격려 방문’은 신병 1300기 수료식 때부터 시작해 이번이 24번째다.

병 323기 동기대표 김영훈 씨는 “후배 해병들이 훈련을 통해 다져온 자신감을 바탕으로 실무 부대에서도 선배 해병들이 쌓아온 해병대의 명예와 전통을 이어주길 바란다”면서 “노병들을 ‘선배’라고 생각하며 잊지 않고 찾아주는 모군에 감사하다. 해병대에 보탬이 되는 선배 해병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종문 교육훈련단장은 “오늘은 신병 1323기가 대한민국 해병대의 역사를 이어갈 정예해병으로 다시 태어난 뜻깊은 날”



해병 1323기 수료식에서 무적 해병으로 태어난 신병이 친구들과 수료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이민주 하사

이라며 “신병들은 대한민국 해병대로서의 자부심을 잊지 말고 각자의 실무 부대에서도 항상 도전하고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채무 기자

군·경, 더 촘촘하고 안전한 도시작전 합심

육군17보병사단, 합동 전술훈련 실시
전차대대, 가족·지역민 부대 초청행사

육군17보병사단은 지난 1~3일 인천시 서구 도시지역전투훈련장에서 인천경찰청과 도시지역 합동 전술훈련을 실시했다.

군·경 상호운용성을 검증하고 도시지역 작전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 훈련에는 사단 수색대대·군사경찰대대, 인천경찰청 기동대·특공대에서 100여 명이 참가했다.

훈련은 실제 도시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군·경 합동 검문소 운용 △개인화기 중심의 기본 사격술 배양 △CQB(근접전투기술) 기초이론 교육 등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사단과 인천경찰청은 군·경 도시지역 합동 전술훈련을 정례화해 작전 지역에 대한 통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훈련에 참여한 수색대대 양옥조 대위는 “군·경이 함께 훈련해, 실제 작전환경과 유사한 도시지역에서 각자의 역할과 대응 절차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합동 전술훈련을



육군17보병사단 수색대대 장병들이 인천경찰청 기동대와 도시지역 합동 전술훈련을 하며 근접전투기술을 숙달하고 있다. 부대 제공

통해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단 전차대대는 최근 장병 가족과 지역주민, 지역 거주 장애인 100여 명을 초청, 부대개방행사를 개최해 민·군이 어우러진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행사에서 대대는 참석자들에게 편제 장비를 소개하고 전차모의훈련장 체험, 사진 전시회 관람 기회를 제공했다. 장비 소개 시간에는 K1E1 전차, K200A1 장갑차 등의 기동 시범을 보이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높였다. 특히 사진 전시회에서는 장병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소개해 소통의 의미를 더했다. 장병들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병영 문화예술 체험교육의 하나로 지난 6월부터 사진 촬영 기법을 배웠고, 이번 행사를 통해 작품을 전시하며 숨겨왔던 재능을 선보였다.

송창욱(중령) 대대장은 “장병들이 가족과 한층 가까워지고 군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한영·이원준 기자

최신 도하기술 나누고 발전 논의 육군7공병여단 작전지원 발전 세미나

육군7공병여단은 3~4일 경기 남양주 도하단에서 ‘제2회 도하작전지원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우식(대령) 7공병여단장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는 1·2·3·5공병여단, 공병학교, 방위사업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군·산·학·연 관계자와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도하작전지원 최신기술 공유 △도하작전지원 노하우 및 교육훈련 발전방안 등 2개 세션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특히 ‘미래 도하작전 개념’과 ‘전력 발전 방향’까지 범위를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참석자들은 1일 차에 도하단 영내 훈련장에서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수룡(KM3) 운용 시연을 보고 탑승 체험을 했다. 본 행사에서는 △미래 공병전력 발전 방향 △M&S(모델링 및 시뮬레이션)를 활용한 도하 시뮬레이션 △리분부교 운용성 개선 방안 △도하공격작전 드론 운용·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2일 차에는 이영인(대령) 7공병여단 도하단장 주관으로 △도하작전 시 부대 운용 △작전형태별 도하 수행방안 △습지 지역 비치매트 전투실험 결과 등 현장 경험과 발전방향을 공유했다. 박상원 기자